

나주 공산화혜단지 보조금 회수 '막막'

신정훈 前시장 부당지급 판결 12억

공개매각 돼도 전액 회수는 힘들 듯

신정훈 전 나주시장이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해 문제가 된 나주 공산화혜단지의 보조금 회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주시는 보조금 회수를 위해 최근 공산화혜단지내에 대한 공개매각(공개매)을 의뢰한 상태지만 회수금은 나주시가 지급한 보조금 12억원에 턱없이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신 전 시장을 비롯해 보조금 집행에 관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신 전 시장의 직위상실에도 불구하고 공산화혜단지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나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신 전 시장이 지난달 25일 대법원의 원심 확정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면서 공산화혜단지 보조금 회수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 전 시장은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 화혜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금 부담 능력이 없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화혜농협조합에 2004년 5월과 2006년 2월 모두 12억3천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이번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

시 나주화혜농협조합은 보조금에 자비를 더해 총 24억원으로 3만6천㎡의 대규모 화혜단지를 조성했다.

나주시는 재정이 일단락됨에 따라 공산화혜단지 보조금 회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실제 얼마나 회수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마땅한 보조금 회수 방안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아온 나주시는 지난 1월 자산관리공사에 화혜단지내에 대한 공개매를 의뢰한 상태다.

문제는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아 1차 공개 가격에 알 수 없지만 공개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데 있다. 일부에서는 자산관리공사가 평가법인에 감정가를 13억원으로 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13억원으로 1차 공개에 들어가더라도 몇차례 유찰될 경우 회수금이 턱없이 줄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화혜단지 규모가 너무 커다 장기간 방치돼 있어 재 사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철거비용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공개로 새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주시는 그동안 보조금 회수를 위해 화혜농협조합에게 임대료를 추징하기도 했지만 입주자들이 시촉에 억대가에 넘어가는 비닐하우스 교체 비용을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국 공개로 돌아왔다.

금천에 사는 박모(45)씨는 "법적으로 잘잘못이 가려진 만큼 빨리 상 처를 치유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회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회수가 어렵다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j@

장흥 억불산 자락에 목공예센터

전남도 70억 들어 2,475㎡ 규모 8월 완공

장흥 억불산 자락에 목공예의 체계적인 생산과 체험, 판매를 하는 '목공예센터'가 들어선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공예 센터는 규모 18억5천만 원 등 총 70억 원을 투입해 장흥군 우산리 일원 9천40㎡의 부지에 건축물 2천475㎡의 대규모 한옥형 목구조 2동을 오는 8월 완공 예정이다.

앞 건물은 공예전시판매장과 기획 전시실, 뒷 건물은 공예창작공방, 체험실, 교육장, 디자인개발실 등이 자리하게 된다.

건축 설계는 한옥형태의 건축구조를 도입했고 내화성이 강한 집성목을 사용했다.

전남도는 장흥지역이 보유한 편백 나무 등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연계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 전남공예조합과 연계한 홍보 전시판매장을 개설해 전남지역 목공예의 지리적브랜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kykim@



죽녹원의 봄 인파 포근한 봄날씨 속에 1일 담양군 죽녹원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담양군은 3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6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죽녹원을 찾은 것으로 집계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작품 접수

담양군은 다음달 7일까지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공모 작품을 접수한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대나무 공예대전은 대나무를 소재로 한 우수 공예품 발굴과 공예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작품공모는 대나무나 대나무 혼합 재료를 소재로 한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일반인)과 디자인(대학생), 조형물 등 3개 부문으로 나뉘며 1인(업체) 2작품 이내로 한정된다.

출품신청서는 2일부터 4월 9일까지 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와 한국대나무박물관, 읍·면 사무소에서 교부한다. 4월 7일부터 3일간 한국대나무박물관(061-380-3479)에 접수하면 된다. 제품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상금 500만원), 디자인분야 대상은 전남도지사상(상금 150만원), 조형물 분야는 특별상(군수상·상금 150만원)이 수여된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발명가 에디슨처럼 큰 꿈 키워라"

장흥 대덕아동행복마을·군청 봉사대

'에디슨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 호평

"내 공부방에서 '발명가 에디슨'처럼 꿈을 키울래요"

장흥군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이 관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에디슨공부방 꾸미기' 사업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We Start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위원회의 후원과 장흥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장흥군청 한울타리 자원 봉사대'가 앞장서 지난달부터 매달 1가구씩 연중 추진하고 있다.

'에디슨 공부방 꾸미기'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도록 공부방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대상 학생에게는 공부방 도배, 장판교체 등 수리를 비롯해 책상, 의자, 옷장, 학생용 가구일체, 스탠드, 아동용 이불, 도서 등이 지원된다.

대덕아동행복마을에서는 대상학생 선정을 비롯해 사업비 지원과 후원금품 접수를 담당하며, '장흥군청 한울타리 자원봉사대'에서는 공부방 수리와 더불어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

첫 사업대상자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모야모야



장흥지역 어린이들이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청소년 문화의 집에 마련한 '위스타트 아동행복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moyamoya)방'을 열고 있는 황모(10·대덕초교 3학년) 어린이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대덕아동행복마을 운영위원회, 천관농협, 탐사사 도성스님, 전국어린이집 연합회장의 후원금이 큰 보탬이 됐다.

대덕아동행복마을을 관계자는 "지역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저마다 소중한 재능을 키워 미래의 에디슨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kykim@

배 신제품 재배 늘려 수급 불안 해소

나주시 화산배 희망농가 묘목구입비·토양개량제 등 지원

나주시가 매년 반복되는 배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신제품 재배를 적극 지원한다.

나주시는 전체 재배면적의 85%에 달하는 신고배 위주의 재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신제품 '화산배' 식재 등 배 품종 다변화를 추진한다.

신제품인 화산배는 당도가 13브릭스(Brix) 안팎으로 신고배보다 높은데다 과일 껍질이 검게 변하는 흑변 현상도 거의 없는 품종이다. 과즙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 미국과 대

만 등 주요 수출 품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화산배 묘목구입비, 토양개량제 지원, 제초와 거름주기 등 과원 기반정비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나주배시험장과 함께 적정 착과량, 전정법, 재배관리 방법 등의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화산배가 신고배보다 수확시기가 10여일 빠른 만큼 추석을 전후

로 쏟아지는 홍수출하 예방 등 수급 조절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 농가는 과수원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나주배원협 지도과에 다음 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나주시 배원예과 061-330-8389.

한편 대표적 배 주산지인 나주지역은 2천500여 농가가 2천600여ha를 재배, 연간 7만5천여t을 생산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j@

장성군 민원사무 177종 처리기간 단축

장성군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 주요 민원사무 170여종에 대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장성군은 2일부터 5일 이내에 처리토록 돼 있는 민원 230종 가운데 177종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보다 짧은 단축 처리기간을 적용·운영한다.

장성군은 지난해 133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올해 재검토를 거쳐 44종의 민원사무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민원접수 부서에서 처리부서로 서류를 넘길 때 단축처리기간을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光州日報 전남중부취재본부
평안간지 뉴스 담당영양장정장홍효순

본부장	김용기
기원대	국장
최승렬	부장
이상규	차장
정철현	기자
남철희	기자
정운수	기자
김용호	기자
노정훈	기자

태양광발전소부지구합

■ 위치장소 : 제한없음
■ 용량 : 제한없음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10, 2011년 할당으로 선정하신 분 곳.

광주·전남권 중형미트구합

■ 위치 : 주변 3000세대 이상 밀집지역
■ 매장면적 : 150-350평
■ 임대 및 매수가능.
■ 영업 중인 매장도 인수가능

(주) 땅심
TEL : 010-3615-8698

현리 친환경 전용운반차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전용운반차입니다. 내화성능이 높고 안전 운전자 전용운반차로 안전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전용운반차입니다. 내화성능이 높고 안전 운전자 전용운반차로 안전합니다.

1. 내화성능이 높고 안전 운전자 전용운반차로 안전합니다.
2. 내화성능이 높고 안전 운전자 전용운반차로 안전합니다.
3. 내화성능이 높고 안전 운전자 전용운반차로 안전합니다.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한문지도사(1기)	한문지도사(2기)	한문지도사(3기)
연수기간	2010.3.15~4.15(4주)	2010.3.15~4.15(4주)	2010.3.15~4.15(4주)
수강료	2010.3.15~4.15(4주) 200만원	2010.3.15~4.15(4주) 200만원	2010.3.15~4.15(4주) 200만원
수강대상	한문지도사(1기) 수료자 또는 한문지도사(1기) 수료예정자	한문지도사(2기) 수료자 또는 한문지도사(2기) 수료예정자	한문지도사(3기) 수료자 또는 한문지도사(3기) 수료예정자
수강신청	2010.3.15~4.15(4주) 200만원	2010.3.15~4.15(4주) 200만원	2010.3.15~4.15(4주) 200만원
문의처	한문지도사(1기) 2010-3-15-4-15(4주) 200만원	한문지도사(2기) 2010-3-15-4-15(4주) 200만원	한문지도사(3기) 2010-3-15-4-15(4주) 200만원